올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구강보건의 해 「구강보건 :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齒協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를 「口腔보건의 해」로 정함에 따라 행사준비위원회(위원장 : 李起澤치협부회장)를 발촉하고 올해 「구강보건의 해」 표어를 「구강보건 :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로 정하는 한편 목표를 대국민·대정부 홍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齒協은 이를 위해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구강보건의 해」를 상징하는 로고와 스티커를 제작하여 공공교통 수단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기념우표의 발행, 구강보건 계몽용 팜프렛 제작배포, 아동들의 구강보건 인식을 위한 동요제작등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으며 대정부 홍보차원에서는 상수도 불소화사업 및 한국의 구강보건 정책사업에 대한 심포지엄등을 개최하여 한국 구강보건 행정의 실태를 개관적으로 지적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齒協은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행사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내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행사진행을 계획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구강보건의 해」를 기해 △청량음료등에 충치유발지수 표기를 위한 여론조성 운동 △성형재건에 활용되는 연골기증 운동 △구강용품 휴대운동 △이쑤시개 안쓰기 운동등 각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齒材協 – 약사법 개정 적극 추진
— 치과재료 특례법안 모델안 제시 —

대한치재협회(회장·吳東鉉)는 지난 19일 치재협 사무국에서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회원의 권익신장 ▲치과재료 유통질서의 확립 ▲약사법 및 제규정 개정 ▲치재협보의 활성화등 새해 역점사업을 밝혔다.

이날 吳東鉉 대한치재협회장은 현행 약사법과 관련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약사법 개정에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리도카인등 일부 치과용의약품은 약사법에 의거 일반약국에서 취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치과용의약품의 특성상 일반약국의 취급은 적은이윤과 배달등 현실적인 이유로 취급을 꺼려하고 실제로 취급하는 약국도 찾아보기 힘들며 또한 사용자인 치과의사들도 약국이 아닌 치과재료상에 주문하고있어 이로인해 일부치과재료상들이 약사법에 저촉되는 불미스런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吳東鉉 대한치재협회장은 치과용의약품은 치과재료상에서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나 현행 약사법 및 제반규정 사항이 회원사가 취급하면 불법으로 2천만원 상당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현행약사법이 개정될 때 까지 취급하지 말것을 회원사에 당부하는 한편 치과의들도 주문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체회원사를 위해 불법으로 배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등 협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吳東鉉 대한치재협회장은 현행 약사법 개정을 위해 일본의 의약품 취급법안을 모델로 제시하며 약사법내 치과재료특례법 제정, 치과재료업소의 시설기준 개선 및 의료용구조합의 추천권 이양문제등을 보사부및 정부당국과 여러채널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유관단체와 공동추진할 의사를 개진하였다

디스켓으로 보험 청구

디스켓으로 치과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의료보험연합회와 대한치과의사 컴퓨터 동호회(회장·최종)와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지난 9월엔 이미 시험적으로 11개 치과의원을 선정하여 시행해 왔는데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마침내 지난 12월에 성공하여 94년 1월 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연합회는 우선 치과의원 16개기관, 의원 9개기관등 25개 의원급기관에 대해 디스켓청구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이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실시될 경우 명세서 서식에 따른 엄청난 비용과 쓰레기 공해를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측에 연간 31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의료보험연합회측엔 연간 30억원이 절감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디스켓에 보험청구데이터를 수록하여 발송하는 이방식은 대한치과컴퓨터동호회에서 개발한 치과의원전산청구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가능하며 동호회에 등록하는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공급하고있다.

전산청구 소프트웨어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대치컴 BBS에 접속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모뎀을 통해 전송받으면 된다

한편 대치컴 동호회에서는 2월 24일 동서울 호텔에서 이 프로그램의 시연회를 대형 특수컴퓨터로 가질 예정이다

IADR 한국지부 정기총회 성료
신임회장에 金英洙교수
차기회장에 金哲偉교수

국제치과연구학회(IADR) 한국지부 제10회 정기총회가 지난 22일 라마다올림피아호텔에서 열려 2년임기의 회장에 金英洙 서울치대교수가 신임회장에 취임하고 차기회장에 金哲偉 서울치대교수가 선출되었다.

1백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동석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회무보고에 이은 감사보고에서 1천3백16만원의 결산보고를 승인하고 지부연회비 및 본부회비등으로 편성된 1천5백21만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21~22일 양일간 진행된 학술대회는 특강 3연제와 1백여편의 학술논문 등이 발표되었다.

齒醫國試 9백 38명 응시

제 46회 치과의사국가시험이 지난 14일 한양공고에서 실시되었다.

총 9백51명이 지원하여 결시 13명을 제외한 9백 38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외국치대 출신 응시자는 총 1백 87명(필리핀 1백 80명, 미국 7명)으로 작년의 1백 3명보다 8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시위원들에 따르면 기출문제가 예년의 수준과 비슷하므로 총 1천9명이 응시 8백82명이 합격한 작년의 경우와 비슷한 합격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splint의 근육에 대한 작용 mechanism을 일부 규명
-美 교정학회지

본지 지상진료실의 투고자인 청아치과병원의 백철호 교정과장의 논문이 지난 11월자 미국교정학회지 (American Journal of 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pedics)에 실렸다. 「Increase in vertical dimension alters mechanical properties and isometric ATPase activity」라는 논문에서 백과장은 splint의 근육에 대한 작용 mechanism을 일부 규명하였다. 저자에 의하면 splint therapy등에 의한 vertical dimension의 증가가 masseter근의 actin -myosin turnover rate를 감소시키고 경제적으로 ATP소비를 할 수 있게하여 결과적으로 ATP고갈에 기인하는 muscle spasm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齒協 신년교례회

치협은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치과계의 많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새 출발을 다짐하는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날 신년교례회에서 金正均 협회장은 全薰植부회장의 대독을 통해 「지난 한해는 치과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중에 치과대학 신설저지, 해외유학생의 국시응시자격 강화등은 여러 치과인이 이루어 낸 성과였다」며 이런 모든 결과는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안박 서울지부장을 비롯하여 김수경 공직지부장, 김일경 서울지부의장, 김찬숙 여자치과의사회장, 오동현 치과재료협회장등 많은 인사가 참석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총및 종합학술대회 개최확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제 43차 정기대의원총회 및 협회창립 73주년기념 제 41회 종합학술대회 개최가 확정됐다

치협은 제 43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오는 4월 23일 힐튼호텔에서 개최하며 협회창립 73주년기념 제 41회 종합학술대회는 오는 10월 21일(금)~22일(토)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다.